

	독 일 (프 랑 크 푸 르 트) 사 무 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 9.

CEPA Insight

- 전기차 전환 정책의 실현 지연,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이슈에 대응한 충전시설, 배터리 등 전기차 관련 적극적인 시장 진출 모색 필요

① 독일 극우, 나치당 이후 지방선거 첫 승리

- 옛 동독 지역인 튀링겐주 주의회 선거에서 독일대안당(AfD)이 1위 차지
 -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 후 79년 만에 첫 극우정당의 승리
 - AfD는 32.8% 득표, 중도우파 기독교민주연합(CDU)이 23.6%로 2위
 - 같은 날 작센주에서도 CDU(31.9%)에 이어 AfD가 2위(30.6%)에 오름
- 반면 '신호등 연정'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당(슐츠 총리 소속)과 녹색당, 자유민주당 등 집권 연정은 모두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치며 참패
-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집권 연정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여론
 -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반(反)이민 정서가 강한 옛 동독 지역에서 '극단주의 열풍'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분석
- 한편, 대부분의 정당들이 AfD와 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부정적이라 향후 연립정부 구성을 놓고 혼란이 야기 될 것으로 예상

※ 출처 : DW (<https://www.dw.com/de/rechtspopulistische-afd-st%C3%A4rkste-kraft-landtagswahl-th%C3%BCringen/a-70105093>)

② 독일 경기전망은 부정적

- 만하임유럽경제연구센터(ZEW)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
 - 독일 국내총생산(GDP)은 '24.1분기 0.2% 성장 후 2분기 0.1% 감소
- '24년 하반기 전망지표 또한 22.6p 하락했으며(19.2p)
 -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부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

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unternehmen/drohende-rezession-pkonjunkturerwartungen-brechen-ein-a-b3f71092-79b7-41cd-a9bc-d9dbc0af9fd6>)

③ 독일 내 창업조건 재차 악화

- 독일상공회의소(DIHK)는 "기업창업보고서 2024"를 발표하고 독일 내 회사설립을 위한 조건이 역대 최악이라고 발표
 - 지난해 창업 자문 건이 6% 감소하여 최저치를 기록, 창업자 수가 줄어들면 성장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잠재력을 잃게 되는 것이라 경고
- DIHK가 올해 1-2월 952명의 창업자 및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지로서의 독일에 대한 평가는 3.6점으로 역대 최악의 평점 기록
- 기업들은 과세제도 단순화 및 관료주의 축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독일 내 외국 기업 설립의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절차의 간소화 및 창구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
- 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kritik-vom-dihk-bedingungen-fuer-gruender-in-deutschland-verschlechtert-a-9edd547f-3930-425e-8d1b-a957dde9ba0d>)

④ 독일 소비자, 온라인 쇼핑 선호도 지속 상승

- 포스트 بانک의 설문조사 결과,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높게 유지해온 독일에서도 온라인 쇼핑의 인기가 급속히 상승 중
 - 넓은 선택폭, 빠른 가용성, 저렴한 가격 등으로 일반 소매업체가 온라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
- 동 조사결과, 독일 국민은 10건 중 3건 정도의 구매를 인터넷을 통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온라인 쇼핑객의 연령구조를 보면 젊은층이 훨씬 개방적이어서 40세 미만의 온라인 점유율은 40%인 반면, 40세 이상은 27%에 불과
- 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online-shopping-so-beliebt-wie-zu-beginn-der-coronapandemie-a-7eeb294e-1b66-492f-b450-815fd0658c67>)

5 전기차 판매 저조현상 지속

- 연방정부가 내세운 2030년까지 독일 내 전기차 1,500만대 운행 관련해당 목표의 달성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
 - 자동차청에 따르면 '24. 1월 기준 등록된 전기차는 140만대에 불과
 - 특히, 7월 전기차 등록 수는 3만762대로 지난해 동월 비교 36.8% 감소했으며, 신규등록 자동차 중 전기차의 차지하는 비율은 12.9%
 - 전기차 판매량 또한 수개월째 정체 중이며, 신규등록 수도 지난해 대비 급격히 하락, 1월-7월까지 등록된 전기차 수는 약 215,000대로 전체 신규등록 중 12.6% 차지(전년도 같은 기간 16.4%)
 - 독일의 컨설팅 업체 EY의 시장조사대표는 전기차 판매가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
 - 높은 가격, 저렴한 소형 전기차 모델 부족, 중고 전기차 가격 하락, 주행거리 문제, 긴 충전시간,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을 언급했으며
 - 주행거리를 확대하고 충전시간을 단축한 신규 모델들도 현 수요 부진을 역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
- 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elektroautos-kaeuffer-zeigen-wenig-interesse-ziel-von-15-millionen-e-autos-gefaehrdet-a-0902aff1-b55b-47f0-837d-87fc533741a6>)

6 (투자기업 동향) 인피니언, 말레이시아에 수십억 유로 투자

- 독일 칩 제조업체인 인피니언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임금 국가에 소재한 공장에서 2,800개의 일자리를 감축하고 해외 이전 계획을 발표
 -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비부르크(Rutger Wijburg) CEO는 8. 8(목) 말레이시아 쿨림에 실리콘카바이드(SiC) 반도체 생산을 위한 공장을 건설했으며 올가을에 첫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인피니언은 첫 단계로 20억 유로를 투자하여 '26년 말~'27년 초까지 공장을 확대하고, 이어 50억 유로를 투자하여 2단계 확장 추진 예정
- ※ 출처 : Spiegel (<https://www.spiegel.de/wirtschaft/unternehmen/infineon-eroeffnet-fabrik-in-malaysia-flucht-in-billiglohnland-a-d89e76ea-3985-4474-a511-ead2e21f0b44>)